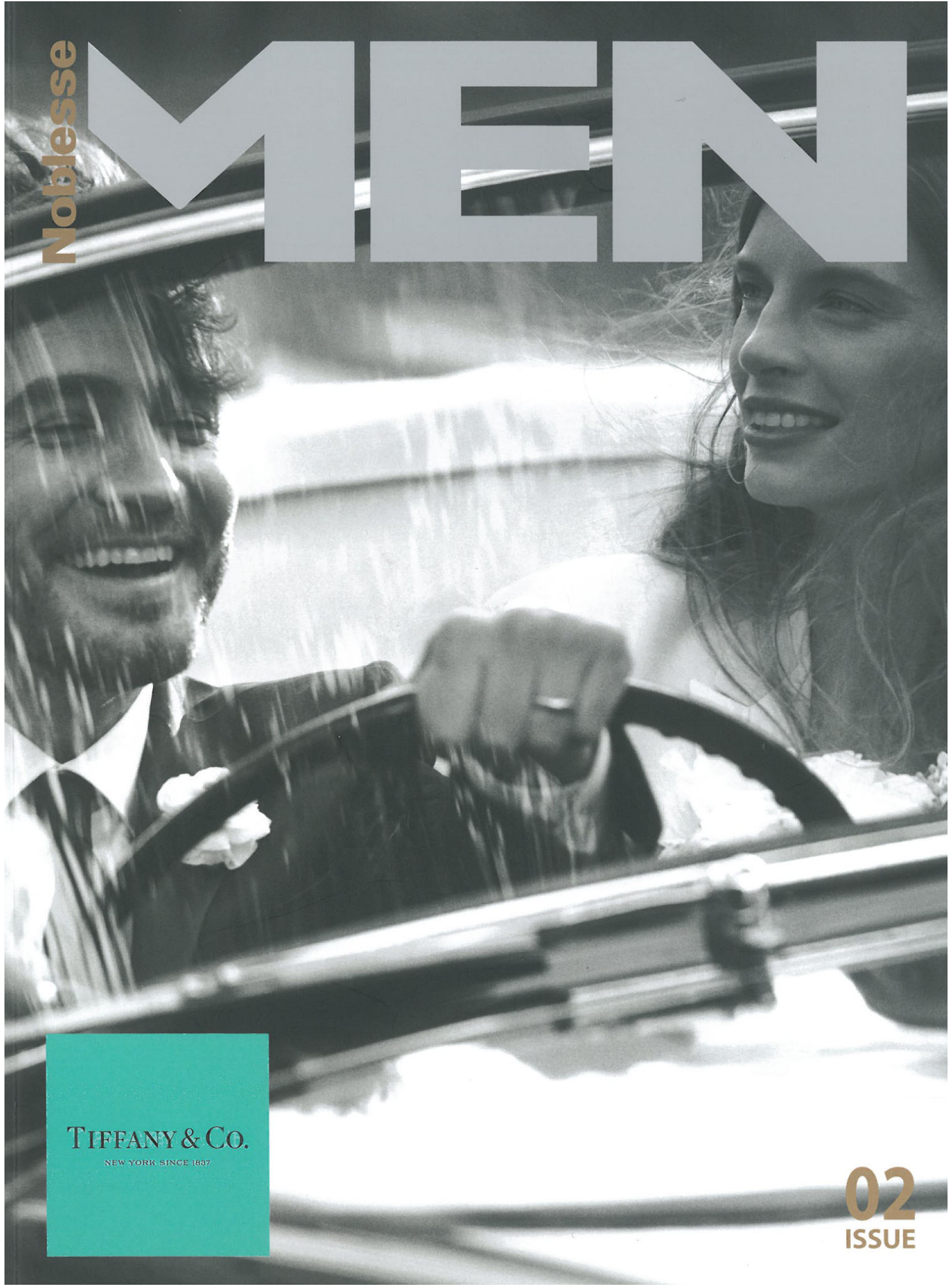


Noblesse

MEN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02
ISSUE

남자라는 이름으로

힘센 수컷들의 경연장인 미술계에서 마초의 기술로 승부하는 작가들이 있다. 남자답거나, 그래서 더욱 남자답지 않은,

에디터 김재석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 이는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이 1971년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그녀의 질문은 남성의 시선으로 기록한 서양 미술사에 경종을 울리는 외침에 가까웠다. 노클린의 논문이 발표된 지 십수 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2014년 ‘아트넷(Artne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장 가치가 높은 살아 있는 예술가 100명 중 단 3명만이 여성이다. 쿠사마 야요이, 신디 셔먼, 줄리 메레투가 겨우 명함을 내밀었을 뿐, 격리된 진공의 순수 공간처럼 보이는 미술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술관의 하얀 벽을 채운 수많은 작품의 주인은 대부분 남성 작가로,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을 성비로 살펴보면 여성 작가의 작품은 2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힘센 수컷들의 경연장인 미술계에서 유독 ‘남성미’를 내세워 마초 이미지로 작가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거나, 역으로 그 남성성의 신화를 공격해 무너뜨리는데 공을 들인 ‘마초’ 작가를 소개한다.

마르셀 뒤샹, 발명된 남성

미술의 역사를 180도 바꾼 작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그는 대량생산한 일상용품이나 기념품을 작가의 서명을 통해 ‘작품’으로 둔갑시키는 봉이 김 선달식 ‘레디메이드 미학’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러나 뒤샹만큼 ‘남녀’라는 이분법적 경계 짓기를 희롱한 작가도 드물다. 남성 소변기를 사다 ‘R. Mutt, 1917’이라 서명한 ‘샘(Fountain)’은 용도뿐 아니라 외형 자체가 남성기 혹은 여성의 유방이나 자궁과 비스듬한 모양새다. 그의 소변기가 뉴욕에서 열린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서 퇴출당했을 때, 작가의 도발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뒤샹 자신을 포함한 주변 작가와 평론가들이 내놓은 해석은 ‘샘’이라는 작품에 숨은 성적 알레고리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샘’이 르네상스 시대의 마돈나나 동양의 부처상, 조각가 브라쿠시의 에로틱한 조각과 닮았다는 평가가 줄줄이 등장했다. 종교적 도상은 그 자체로 초월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함축한 이미지 아닌가. 뒤샹의 (남성적) 우상 파괴 전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로 이어졌다. 그는 ‘모나리자’를 인쇄한 싸구려 기념엽서에 콧수염을 그려 넣고는 그 밑에 ‘L.H.O.O.Q.’라고 써넣었다. 프랑스어로 ‘엘 아슈 오오 퀴’라 발음하는 제목을 읽으면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는 문장처럼 들리는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뒤샹은 작품뿐 아니라 성적 정체성을 교란하는 이미지 연출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포피코트를 입고 여장한 모습을 맨 레이가 촬영한 ‘로즈 셀라비(Rose Selavy)’나, 양복을 차려입고 파이프를 문 뒤샹이 분신술을 부리는 것처럼 등장하는 한스 호프만의 사진이 대표적이다. 특히 1924년 맨 레이가 연도용 거품을 뒤집어쓴 뒤샹을 촬



영한 사진은 20세기 미술사에서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남성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 이미지다. 머리카락을 뿔 모양으로 만든 그의 모습이 악마 형상처럼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뒤샹은 공식적으로는 일찌감치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오랫동안 체스에 몰두했다. 1963년 LA의 패서디나 미술관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렸을 때 사진가 율리안 바셔(Julian Wasser)가 촬영한 사진은 마르셀 뒤샹이라는 남성 작가가 구축한 이미지의 완결판이다.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주제로 한 그의 대표작 ‘큰 유리’ 앞에 테이블을 놓고 멀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뒤샹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 작가 이브 바비츠(Eve Babitz)가 체스를 두는 장면 말이다. 2009년 미국의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에서는 뒤샹의 이런 사진을 선별해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름하여 ‘발명된 마르셀 뒤샹(Inventing Marcel Duchamp)’전.

1 사진가 율리안 바셔가 촬영한, 마르셀 뒤샹과 작가 이브 바비츠가 체스를 두는 모습

2 ‘모나리자’ 기념엽서를 활용한 ‘L.H.O.O.Q.’, 1919 3 알프레드 스티글리치가 촬영한 ‘샘’,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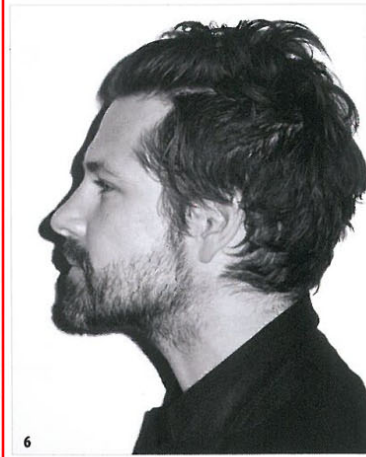
이브 클랭, 양복 입은 유도-신사

이브 클랭(Yve Klein)은 작가가 되기 전 유도에 폭 빠져 살았다. 1952년 스물네 살에 유도를 배우기 위해 파리를 떠나 일본 고도칸에서 수련한 그는 처음으로 유도 4단의 검은 띠를 띤 유럽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54년엔 〈유도의 기초〉라는 입문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가 작가로 활동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것. 중세 성화에 사용하던 울트라 마린에 가까운 파란색을 만들어 'International Klein Blue(INK)'라 명명했다. 시퍼런 INK로 덮인 모노크롬 회화로 명성을 얻은 그는 예의 몸 쓰는 일을 방법론으로 끌어왔다. 하지만 유도로 단련된 탄탄한 제 몸이 아니라, 나체 여성의 몸을 붓으로 삼았다.

1960년에 발표된 '청색 시대의 인간축정학'은 이렇게 완성된다. 지휘자처럼 턱시도를 입은 클랭이 등장해 연주자들에게 맨손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가 작곡한 모노톤 심포니가 울려 퍼진다. 나체 여성들이 물감통을 들고 나와 몸에 INK를 바른 후 클랭의 진두지휘 아래 바닥과 벽에 있는 캔버스에 몸을 비비거나 뒹굴며 물감의 흔적을 남긴다. 캔버스에는 풍만한 여성의 가슴과 잘록한 허리, 허벅지를 연상시키는 실루엣과 난잡한 집단 성교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이 한 폭의 추상화처럼 남게 된다.

그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회화의 영역에 불을 끌어오기도 했다. '불', '불 걸러' 회화 연작은 소방관을 대동한 채 화염 방사기로 캔버스를 태우는 작업이다. 물론 그는 나비넥타이에 조끼까지 갖춰 입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불' 회화에 '인간축정학'을 결합해 여성의 신체가 유령처럼 부유하는 회화를 제작하는 데 매진했다.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은 클랭의 '영웅 심리'를 더욱 고양한 모양이다. "내 작품은 내 아트의 잿더미(ashes)"라는 말에서 묘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4 1960년 '청색 시대의 인간축정학'을 선보이는 이브 클랭 5 People Begin to Fly(ANT 96), 캔버스에 유채, 250,19x402,59cm, 1961



에런 영, 오토바이로 그린 그림

자, 그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마초'의 작품을 살펴보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에런 영(Aaron Young)은 미국의 대중문화나 미술사에 내재한 남성중심주의적 성향을 탐구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은 추상표현주의나 미니멀리즘 등 미국의 대표적 미술 사조와 미술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매력적인 외모를 소유한 그는 앞서 설명한 뒤상이나 클랭 같은 선배처럼 위아래로 양복을 갖춰 입은 대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다. 정확히 말하면 오토바이로 그림처럼 보이는 흔적을 남긴다. 그는 라이더를 고용, 함석판이나 합판 패널에서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해 바퀴 자국으로 추상회화를 제작했다. 직접적 방법론은 로버트 라우션버그가 포드 모델 A로 천에 남긴 자동차 바퀴 작업 'Automobile Tire Print'를, 작품으로 제시한 화면의 분위기는 잭슨 폴록이 드립링 기법으로 만든 일련의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연상시킨다. 에런 영도 자신의 작품을 "추상예술인 동시에 퍼포먼스"라고 설명한다. 오토바이를 도구로 삼은 그의 'Burnout' 연작은 이브 클랭의 '인간축정학'이나 '불' 회화처럼 다분히 쇼적인 요소가 강하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굉음이나 바닥과 바퀴의 과도한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연기로 대단히 남성적인 에너지가 분출하고, 화면에 고스란히 그런 기운이 남는다. 그는 오토바이 이외에 고급 스포츠카와 스포츠 등 흔히 남성적 문화로 여기는 요소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렇다고 남성중심주의 문화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남근적 형태나 행위를 공격하는 데 집중한다.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놓고 마치 추구를 하듯 발로 차며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작품은 어떤 사물이나 작품이 아니라 장소가 지닌 상징적 권력을 공격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의 전유물이나 '남성적'이라 여기는 마초적 태도로 남성중심주의의 유산을 문제 삼는 아이러니가 어딘가 뒤상을 닮았다.

6 테리 리차드슨이 촬영한 에런 영의 모습 7 무제, 채색한 낫쇠에 탄 고무자국, 243,8x182,9cm, 2012

국립현대미술관 제1관